

축 사

'23. 11. 24.(금) 10:00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ESG기준원 심인숙 원장님,

그리고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님,
한국예탁결제원 이순호 사장님,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사장님,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님,
코스콤 홍우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우수기업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그간 ESG 정책 추진 경과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에 초대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공급망 분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이
우리 경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던
한 해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EU의 경우
ESG 공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 인권에 대한 공급망 실사의무 부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ESG 이슈를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더 나아가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공시 - 평가 -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 제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금년 초(23.2월) 'ESG 금융추진단(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을
신설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해 왔습니다.

ESG 공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제도의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ESG 공시 도입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ESG 평가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ESG 평가기관 가이드언스를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23.9월)

ESG 평가기관 가이드언스에서는
평가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과 같이
ESG 평가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율을 담았으며,
국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기업, 투자자, 그리고 관계기관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향후 정책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ESG’ 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ESG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 금융위원회의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설립한 기구('22.12월)
- * 향후 일정(안) : ('24.1분기) KSSB 제안 국내 ESG 공시기준 구체화
('24.2분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입니다.

- * 여타 기준(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은 현재와 같이 기업 자율적으로 공시

또한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ESG 공시제도 도입 초기에는
위반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지속가능성위원회(KSSB) 제안 국내 ESG 공시기준(안) → 거래소 규정 반영 → 금융위 최종 승인
- ※ (참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공시(사업보고서 등)와 거래소 규정에 따른 공시로 구분

둘째,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함께,

지난 9월 시행된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가이드선이 시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규제 동향이나,

ESG 평가 가이드선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평가기관의 규율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E), 포용성 높은 사회(S),

투명한 지배구조(G)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ESG 규제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예) 기업 컨설팅 확대(산업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 연계 인센티브 제공(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IV. 맺음말

오늘 수상하신 기업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